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인쇄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98년도 어항예산 11.7% 삭감 추경 예산편성 1,447억원으로

97년 대비 92.9% 수준

올해 어항건설예산이 당초 1천6백38억8천9백만원에서 1백91억3천만원(11.7%)이 삭감된 1천4백29억원 규모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F 체제에 따른 정부 재정규모

축소와 관련, 재정경제원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어항건설예산 중 제1·3종 어항의 농특세예산은 당초 8백21억8천4백만원에서 1백12억1천5백만원(13.6%)을 삭감한 7백9억6천9백만원으로,

일반예산은 당초 6백24억5천5백만원에서 50억1천5백만원(8.0%)을 삭감한 5백74억4천만원으로, 그리고 제2종어항은 1백92억5천만원에서 29억원(15.1%)을 삭감한 1백63억5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당

초 제1·3종 89개 어항중 92

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 개발 중인 항에 농특세예산을 집중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어항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항별 예산배정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93년 이후에 착공하여 개발 중인 12개 항의 조기완공과, 기 완공되었으나 항세신장 등 여건의 변화로 정비확장이 시급하거나 시설후 장기

요한 28개 1·3종 어항에 대해서는 기능제고를 위하여 5백74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제2종어항에 대해서도 1백6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1998년도 어항건설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97 예산 | '98 당초 | '98 추경 | | 비고(%) |
|---------|---------|---------|---------|---------|-------|
| | | | 감액 | 예산(안) | |
| 계 | 155,808 | 163,889 | -19,130 | 144,759 | 92.9 |
| <일반회계> | 54,374 | 62,455 | -5,015 | 57,440 | 105.6 |
| 제1·3종어항 | 54,374 | 62,455 | -5,015 | 57,440 | 105.6 |
| <농특회계> | 101,434 | 101,434 | -14,115 | 87,319 | 86.1 |
| 제1·3종어항 | 82,184 | 82,184 | -11,215 | 70,969 | 86.4 |
| 제2종어항 | 19,250 | 19,250 | -2,900 | 16,350 | 84.9 |

조업구역·선박규모 조정

21세기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별, 톤급 조정을 비롯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업구역 문제, 어업 통폐합 및 겸업 허용검토 등 지금까지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위해 최근

어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 3월까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중앙에는 중앙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 방안에는 어업별로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 3월까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중앙에는 중앙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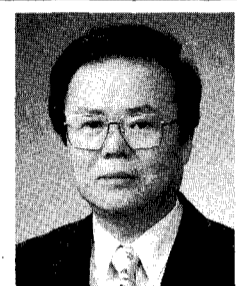
유류오염사고 피해방지책 등

2중 유가제 신설 건의

수협중앙회는 최근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업용면세유 가격안정과 유류오염사고 피해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을 건의했다. 수협은 이 건의에서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어업용면세유 가격폭등으로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유류사용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업채산성이 악화돼 대규모 적자발생으로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어업용 유류가격

은 정부가 최고가 공시 등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등 2중 유가제도를 신설하고 수협자체의 대규모 유류저장시설 신축사업을 지원토록 요망했다. 수협은 2백억원을 투입, 10만 드럼 용량 7기, 총용량 70만 드럼 규모의 유류저장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양어업용 유류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세(제품가의 5%)를 면제하고 석유사업 부과금(배럴당 1.7달러)도 면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방지와 어업인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노후어선 및 이중선체를 구비하지 않은 유조선의 입출항을 금지하고 피해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에서 피해보상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이밖에 소형어선공제금 국고보조지원, 어업무선국운영개선, 상호금융예탁금이자 비과세연장 등도 건의했다.



손정식 회장 1998년도 신년사

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 한해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몰락한 우리의 경제

는 마침내 IMF에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수많은 기업의 도산, 실업자 양산으로 올 한해 역시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호기에 가득 차있던 이 나라가 경제파국과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은 현실 앞에서 모두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가 난파직전인데 그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으로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모두 힘을 합쳐 배부터 구해 놓자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모진 고통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특유의 끈질김으로 이를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6.25로 폐허가 된 쓰레기더미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제1차 2차 석유파동도 이겨냈으며, 1980년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도 슬기롭게 이겨낸 바 있습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지난 12월 18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우리 역사의 한 귀퉁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앞에 닥친 현실이 어렵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휘말리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되며 먼동이 트기 전에 항상 어둠이 짙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아야 할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역사의 단절이나 재편이 아닌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화해와 관용, 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새해 어항부흥 역시 현재 추진중인 어항에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무리 경제난국이라 하더라도 99년 이후부터는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 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황폐화 돼가고 있는 어항어촌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업발전기금'의 설치, '연안어장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산업 중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항은 어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적·물적 및 정보의 중심지이므로 어항종합개발을 통해서 어촌과 도시와의 동화작용을 촉진하고, 어촌과 농촌과의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어촌생활의 합리화 및 광역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해 한국어항협회의 사업계획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어항어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어항어촌개발을 위한 기술 발전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인의 총의 집결과 원활한 참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의 추진은 많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항인들은 먼저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겠으며,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승적 의식을 갖고 새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어항업계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스스로 나서 체질강화를 해야 하겠으며,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과감히 추진해 어항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어항인들은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다는 자각으로 현실을 직시, 새해엔 모두가 주인공으로 각자 제몫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합시다. 정부 역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쪽저쪽 이합집산으로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결코 안되겠으며 보다 성숙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사회,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사업마다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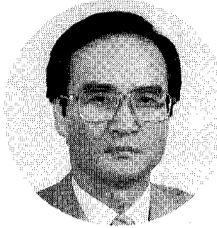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회 만들어야

정부 역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쪽저쪽 이합집산으로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결코 안되겠으며 보다 성숙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사회,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사업마다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동

정

해양문화재단 출범 리셉션에 참석



趙正濟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단법인 해양문화재단 출범리셉션에 참석, 21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달의 수산물 '고등어' 요리 시식회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1월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회의에 참석,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해양문화재단 사업설명회에 참석, 21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달의 수산물 '고등어' 요리 시식회에 참석, 이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주관 '정부조직 개혁 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에서 주관한 송자 명지대총장 초청 'IMF시대의 대응전략' 조찬강연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월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은행장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위해 어민사랑기금 6천5백만 원을 전달, 16일에는 97결산 평가를 겸한 전국수협조합장 회의에 주재.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월19일 본부회의실에서 임원 부서장 지부장 등 2급 이상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IMF한과 대처방안을 협의.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월19일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광주시 동구문화원 제5회 임원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경영자협회 신년인사회 겸 특별연수회에 참석, 10일

에는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 16일에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광주전남지부특별위원 신년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어 전남북합화물터미널 민자유치 사업 설명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매일신문사 시무식을 개최, 5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광주농고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6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에 참석, 14일에는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15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신년하례식 및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3일 나주영산교공사현장에 출장.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신년하례식에 참석, 19일에는 도립 장흥전문대학 설립 기공식에 참석, 이어 한국범죄방지재단광주전남지부 임원회의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6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신년하례식에 참석, 13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15일에는 하정장학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8일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위원회회의에 참석, 14일에는 컨벤션센터 8차이사회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제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신년인사회 및 신규회원 환영식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19일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장장 김창남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용우 △"박재영 △국방대학원 파견 김성규 △해양수산개발원 파견 김하진 △해양수산연수원 원장 강신관 △"부원장 최재양 □과장급 전보 △기획관 리실 투자심사담당관 박근홍 △"전산통계담당관 문형근 △해양정책실 연안역관리과장 한상배 △해운선원국 선원과장 권성원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장 천인봉 △국립수산물연구원 서해수산물연구소 기획과장 정해택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오순복 △"측량과장 성백식 △"해도과장 김창훈 △"자료과장 최영섭 △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이재홍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유병수 △"교수부장 유상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무과장(직무대리) 정봉섭 △"항무과장(직무대리) 김성용 △"항만운영과장(직무대리) 김태진 △"부산항건설사무소 관리과장 홍우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윤용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장 김명기 △국립수산물연구원 기획과장 이장우 △국방대학원 파견 김용학 △세종연구소 파견 양성직 △한국해양연구소 파견 김영환 △해양수산부 근무 정유섭 이문희(1월1일자)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장 김영석(1월10일자) △"해양개발과장 주성호 △해양수산부 근무 우예중(1월15일자) □부이사관 승진 △어업인육성과정 서상범 △항만정책과장 김형남(1월22일자)

▲삼부토건주식회사는 1월12일 조남원 사장을 부회장으로, 조항구 부사장을 사장으로 발령했다.

▲동광건설주식회사는 1월1일 조충환 전무를 부사장으로 발령했다.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는 최근 장진혁 정한레미콘 사장을 분사 사장으로 발령했다.

주소 변경

▲강시환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최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0-3-1블럭 건영아파트 118동 802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345) 497-4866

의 비 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대우엔지니어링(부사장 정도영)

▲여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주상용)

인 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전보 △감사관 정이기 △해양정책실 해양심의관 박원경 △어업진흥국장 오순택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박희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조귀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성춘 △울산지방해양수산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폐지 요구

공정위, 계약금 부당감액 등 우월지위 남용 '시정'

각 시도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들이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민간업체를 상대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공도급제도를 폐지하고 계약보증금 반환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공사업자의 각종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의 시정

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난 95년과 96년에 발주한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경원에 국가계약법령과 투자기관 회계규정의 관련조항 개정시 이를 반영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0억원 미만의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와 5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내에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고 자유경쟁

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1차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부기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고 총공사가 완료된 후 반환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고 마지막 차수 공사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민간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다음 차수 계약시 이미 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며 이 경우 건설업체가 올해 절감하게 될 고용보험료는 공공공사 계약에상액 33조6천억원 기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신항 1단계 민자유치 계획 고시

정부가 포항항을 환동해권의 물류중심항으로 개발키 위해 추진중인 포항신항만 1단계 민자유치시설사업계획이 고시됐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포항신항만 민자유치개발사업을 올부터 본격 추진키 위해 오는 4월8일까지 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 접수후 평가를 거쳐 5월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사업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총 민간사업비에서 이윤을 제하고 예비비와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총 민간 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해야 한다.

또 부두와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일정부부분의 배후토지와 하역장비 등 국가비귀속대상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까지 허용해줄 방침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부대사업중 사업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IMF사태로 기업의 민자참여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민자유치 사업과는 달리 고시내용과 다소 다른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출도 폭넓게 수용,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SOC 민자사업 지원 IMF여파 사업계획 조정

대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외국 감리업체들의 국내 감리시장 잠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외국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진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96년 7개사에 이어 97년에 6개사가 국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함으로써 공식 등록된 외국감리업체는 미국 6개사, 프랑스 3개사, 독일 2개사, 영국과 일본 각 1개사 등 총 13개사로 집계됐다.

日, 수중 호안공사 신공법 개발

임시마감공정 생략, 공비 10% 절감

인력과 공기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수중호안시공법이 개발됐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大本組는 관동지방건설국, 도멘건기와 공동으로 '沒水型低水護岸 急速省力化公법'을 개발했다.

이 공법을 호안공법에 적용시에는 하천과 시공물 사이의 임시마감공정을 생략, 생략화와 공기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1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과정을 보면 우선 준설을 마친후 수상작업이 가능한 높이까지 本設用 강철말뚝을 1차 타설한다.

이어 강철말뚝 9개(이중 2개는 인접한 PC콘크리트블록과 공통)에 대해 콘크리트의 외곽이 되는 PC콘크리트블록 1개를 꼭대기에 씌워 타이로드를 설치한다.

PC콘크리트블록은凸형과凹형이 있으며 상호교체사용이 가능하다. 또 각부분의블록 내부에는 중앙부(강철말뚝 5개)와 끝부분(강철말뚝 2개)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블록설치를 끝낸 후에는 중앙부에 콘크리트를 현장타설, 유닛을 형성하는데 끝부분은블록과 강철말뚝이 구속돼 있지않아 블록단위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

2차타설 때는 신공법 전용 바이트로 해머를 사용, 먼저凸형 콘크리트의 유닛을 타설한 다음凹형 유닛을 수중에 타설 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중에서 인접한 유닛을 같은 레벨로 배열한 상태에서 끝부분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 호안 전체를 연결하면 작업이 완료된다.

고용보험료 시공사부담 없애기로 조달청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될 때 건설업체는 연간 2백40여 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최근 조달청은 이제까지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던 고용보험료를 금년 1월3일 공사계약접수분부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각 수요기관에 통보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IMF시대에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국가차원에서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에는 34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주처가 이를 원가계산에 반영치 않음으로써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보험료 0.3%(상시고용근로자 노임대비), 고

용안정보험료 0.3%, 직업능력개발보험료의 경우 1백50인 미만 0.1%, 1백50인 이상 중 중소기업 0.3%, 중소기업 이의 0.5% 등 1%정도이다.

이에 따라 1백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연간 고용보험료는 2백만원 정도로 대형공사가 수십개 이상인 건설업체는 연간 수천만원 이상에서 절감하게 됐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자체발주기관도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할 것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등 어항이용도 제고

어항협회 98년도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수립

한국어항협회는 98년도 어항청소선 운영계획을 수립, 쾌적한 어항 환경조성과 어항청소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내의 부유물 및 해저침전 오폐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어선 입출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어업인의 어항시설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어항 환경보전을 위한 어업인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올해도 89개 1·3종 어항을 중심으로 시군 및 일선수협에서 필요로 하는 항만 또는 2종어항과 소규모 어항을 대상으로 어항내의 부유물 및 오폐물 수거와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제거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어항 이외의 연안수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오폐물을 수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항청소시 계류 어선 이동 및 청소 수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군과 일선수협 등 유관 기관단체



■ 한국어항협회는 1998년도 어항청소선 운영계획을 수립, 쾌적한 어항 환경조성과 어항청소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바다 유류오염시 수거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경

의 방제훈련에도 참여하는 등 바다정화와 관련, 지원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그러나 IMF체제로

인한 예산감축과 유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올해 어항청소선 운항 일수를 4백20일(적당 60일)로 정했다

일반관리비 5~6% 범위

98년도 諸經費를 확정 조달청

조달청은 올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할 제경비율 중 산재보험율만 다소 하향조정하고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나머지는 작년과 같은 율을 그대로 적용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이 확정된 98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건축건설도로신설 기타건설공사 등 일반건설공사(갑)와 기계장치공사(을)의 올 산재보험율은 각각 2.9%로 지난해보다 0.3%, 0.2% 줄었으며 철도

중건설공사는 3.9%로 0.6%가 각각 감소했다.

조달청은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공종별 기타경비율을 보면 토목 및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공사는 공기에 따라 5.3~6.5%, 5억~30억 원 미만 5.7~6.0%, 30억~50억원 미만 6.43~7.5%, 50억~1백억원 미만 6.3~7.6%, 1백억원 이상 6.5~7.8% 등이다.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를

제외한 각 공종 모두 5억원 미만은 6.0%, 5억~3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를, 전문공사는 5천만원 미만 6.0%, 5천만~3억원 미만 5.5%, 3억원 이상 5.0%를 각각 적용한다.

설계 감리제도 개선요구 많아

건설업계는 설계·감리제도와 입찰·계약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설치 운영한 건설제도개선 제안창구에 모두 22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중 설계·감리와 입찰·계약제도가 전체 접수 제안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설계·감리 7건, 입찰·계약 5건, 자재·기계 4건, 건축법규 2건, 인력·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장기계약공사는 매년 착공과 준공이 되풀이 돼 절차가 번잡하고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매년 시공분에 대한 기성검사만으로 갈음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됐다.

또 현재 입찰시 입찰신청서 등 7종의 서류를 제출토

어업 자연 관광을 조화

日, 니가타현(新潟縣)

료쓰(兩津)시는 해변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수산 자원이 풍부한 좋은 어장을 접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전진기지였으나 근래에는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료쓰 시가 있는 사도(佐渡)섬은 연간 1백4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업과 자연 관광 등 3요소의 조화를 바탕으로 료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기본차상은 '조화로운 시가지(harmony city) 료쓰'.

료쓰 만 지구에는 료쓰, 스이쓰(水津), 시로세(白瀨), 와시자키(鷺崎), 쿠로히메(黒姫) 등 5개의 어항이 있는데, 이들의 교류기능을 일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료쓰 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관광자원의 새로운 창출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도 섬의 관문에 위치하는 료쓰어장을 중심으로 5개 어항의 특색을 살린 '교류기능'의 분담을 고려하고 5개 어항 전부가 일체가 되는 정비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지구마다 구역(zone)을 정하고 있다.

구역제(zoning) 계획으로는 ①어업 관광교류 구역(료쓰; 兩津): 어항시설과 일체가 되는 시 단독용지를 정비하여 수산물 유통의 거점, 사도섬 관광의 거점으로서 정비를 추진한다.

②산책교류 구역(스이쓰; 水津): 부근의 경관을 살린 바다나 자연과 교류하

는 구역으로 한다.

③체험형 어업 구역(시로세; 白瀨): 옛부터 상업적인 대형정어망의 견학이나 종묘시설에 의한 재배어업의 체험을 통하여 어업어촌과 교류하는 체험형 어업을 추진한다.

④관광어업 구역(쿠로히메; 黒姫): 인근의 만을 살린 유료낚시터, 새로운 다이빙 스포츠와 다이빙 기지의 정비를 통하여 자연과 바다와 교류하는 구역으로 한다.

⑤해양레크리에이션 구역(와시자키; 鷺崎):海中 전망탑이나 수중 산책로 등의 가정형 레저시설을 정비하여 바다나 자연, 어촌과 교류하는 구역으로서 축양 시설의 정비 등 개발형의 어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또 장래 정비계획이 진전되어 각 정비거점이 기능을 발휘할 때는 각 정비거점을 일체화하여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각 거점을 연결하는 주된 動線은 육상에 있어서의 어촌교류체험코스과 산책교류체험코스에 의한 차량 등이 주체가 된다.

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바다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각 정비거점과 해륙(海陸)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기능분담을 한 본 정비계획이 하나로 되어 더욱 발전하여 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은 낙찰사안 제출토록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

건교부는 접수된 제안들이 대부분 현장과 직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당초 건설제도개선 제안창구를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안창구 개설기간을 오는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업계 스스로가 일선현장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개선해 나갈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謹賀新年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 光南開發株式會社
- 金光企業株式會社
- 南進建設株式會社
- 南和土建株式會社
- 株式會社大亞建設
- 株式會社大洋
- 大地綜合建設株式會社
- 合資會社大韓土建社
- 東鑛建設株式會社
- 東邦建設株式會社
- 東和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三建社
- 三扶土建株式會社
- 株式會社三洋社
- 三梧綜合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새建設
- 株式會社成鎬綜合建設
- 盛寶建設産業株式會社
- 信友建設株式會社
- 世紀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宇洲綜合建設
- 永生建設株式會社
- 永進建設株式會社
- 林光土建株式會社
- 正韓綜合建設株式會社
- 朝興工營株式會社

(가나다 순)



잡담은 스트레스를 해소 웃음은 백약의 으뜸

점심시간 사무실가의 커피숍 등에는 식사를 끝낸 샐러리맨이나 O.L로 붐비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O.L들은 점심시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지 회사에 돌아 가기도 틈만 있으면 화장실 같은 데서 잡담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할 정도면 좀 더 나은 것은 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자기를 돌아보면 어떨는지. 퇴근 후 별로 내키지 않게 동료와 한 잔 하면서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아이들 진학문제 등등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떠들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 잡담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나 정신 위생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갇가지 고민이나 문제를 자기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 불안이 불안을 부른다고 하는 악순환에 떨어지고 마음과 몸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도 말로 해버리면 의외로 바보같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즉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판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속에서 막연하던 것이 정리가 되어서 해결법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대답을 듣고 싶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중에 고민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기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이야기한 것 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어느 기관에서 정리한 조사에도 남녀 모두 ‘이야기를 남에게 한다’ ‘잡담을 한다’가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데 제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사무실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루에 어느 정도 잡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웃음은 밝은 마음을 만들어 준다.

예를들면 상당한 골초라도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 때는 담배개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밝은 마음이란 스트레스 즉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웃음은 물리학적 효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이것은 호흡의 문제인데 인간은 긴장하면 호흡이 얇아진다. 배로부터 큰 소리를 내어 웃으면 호흡은 깊어지고 산소공급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웃음에 의한 심호흡은 복근 운동도 되어서 내장 구성구석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백약의 으뜸’인 것이다.

② 방식식 직선유도법
일직선을 육안에서 시준하는 방법으로 시준선이 평행하게 되지않을 경우 1점에서 어느 각도로 방사선도 양으로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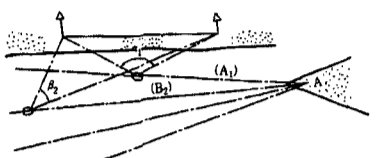


그림 2.2.5 방식식 직선유도법

③ 원호식 곡선유도법
육상에 기준점 A, B를 설정하고 기준점에 대한 각 내각 α , β , γ 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측량선상에서 대분외에 의하여 측각하면서 유도한다. 이 방법은 측량선의 고도의 조선기술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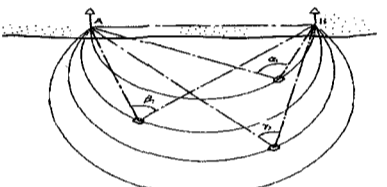


그림 2.2.5 원호식 곡선유도법

④ 쌍곡선식 곡선유도법
육상의 A, B 송신국에서 펄스신호를 송신하고, 선상의 수신장치로 이 신호를 수신한다. 만약 수신장치가 A, B의 수직이등분선상에 있으면 A, B로부터의 신호는 동시각에 도달한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5]

第2章 浚渫工

다. 이와같은 점은 AB의 양측에 선대칭으로 존재하고, P₁, P₂가 이에 해당한다. P₁에서 떨어진 P₁'에 있어서는 점 A와 양중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르고, 그 거리차는 (P₁' B-P₁' A)로 된다. 이 거리차는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P₁', P₂' 상에서 일정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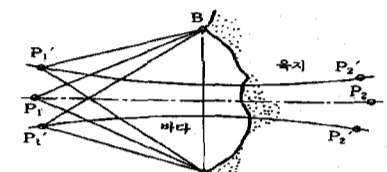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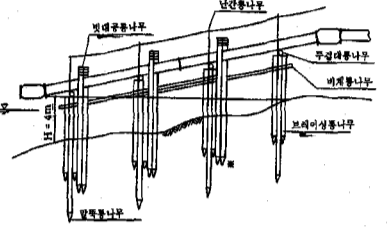


그림 2.2.7 쌍곡선식 곡선유도법

(3) 기자재운반공(반입)
펌프준설에서는 부속품(배사관·플로터·고부조인트·주강부품 등) 및 가설재(받침대재등) 등 많은 설비재를 필요로 한다. 이들 기자재를 현지로 반입·반출하는 것이 기자재운반공이다. 기자재는 작업개시전에 반입한다.

기자재운반공에는 현장조건에 따라 육상운반과 해상운반이 있다. 육상운반은 대체로 트럭이 사용되고, 짐싣기와 짐부리기에는 트럭크레인이 사용된다. 해상운반은 태선에 짐을 싣고 예인선으로 회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물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짐부리기는 트럭크레인과 크레인 부착태선 등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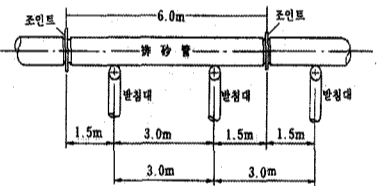
(4) 육상영호설치
해상부동관과 육상받침대관 또는 심실관과 육상받침대관의 접합점을 육상영호라 한다. 이것을 지탱하는 받침대는 펌프준설선의 시동이나 파랑에 의하여 해상 부동관에 힘이 가해져도 그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육상영호 1곳(H=4M, L=12M) 부의 재료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두겹대(coping)통나무 | φ 15cm × 1.8m | 개 | 4 |
| 말뚝통나무 | φ 15cm × 7m | " | 8 |
| 브레이싱(bracing)통나무 | φ 15cm × 5.5m | " | 8 |
| 빔대공통나무 | φ 15cm × 7m | " | 14 |
| 난간지주 | φ 5cm × 2m | " | 4 |
| 난간통나무 | φ 7cm × 7m | " | 2 |
| 비계통나무 | φ 7cm × 7m | " | 4 |
| 이 잡료 | | 식 | 1 |

그림 2.2.8 육상영호의 구조



□ IMF금융 지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분석

(1) 경제성장률이 3%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총통화기준 통화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물가상승률은 4.8~5.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물가상승률이 5% 이내로 억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상승, 유가상승, 세금인상, 공공요금인상 등을 조절하지 못하면 저성장속 고물가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3%성장을 가정하면 실업률은 3.9%선으로 전망돼 실업자는 8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민간연구소는 실업률이 30년만의 최고 수준인 5.4%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백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실업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 정치적인 안정까지 해치게 될 전망이다.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 계획

(1) 각종 행사의 간소화

- 화환, 현수막 제작 및 고급음식점 이용억제
- 외빈초청행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계획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으로 낭비 과소비 요인을 제거

- 또는 연기
- (2) 건전한 가정의례의 실천
 - 애·경사시 화환 지양(정접시 화환사절 문구표시)
 -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억제
 - 관직명의 경조화환, 화분 등 진열 금지
 - 경조사 축의금 한도액 준수
 - 임원 3만원, 간부 2만원, 직원 1만원
 - 직접 참석자제, 가능한한 전보 및 송금 적극 활용
- (3) 낭비·과소비 요인 제거
 - 각종 회의는 사전 통제하고, 보고방법 등을 개선하여 회의시간과 횟수를 30% 줄이고, 서류없는 회의 추진
 - 업무외 사적인 전화 금지
 - 통화는 짧게
 - 내부시행문서 이면지사용 의무화
 - 취임·승진·영전서「난」대신 전화·축전으로 대체
 - 환송식, 환영식은 가급적 간소하게 실시
 - 해외출장시 선물관행 지양
 - 격려금·장도금 관행 지양
 - (4) 사무용품 절약 및 사무기

- 기 활용도 제고
 - 종이류, 필기구 등 사무용품 아껴쓰기
 - 각종 인쇄물의 양면인쇄 및 인쇄부수 최소화
 - 출력용지 최소화
 - P.C화면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오탈자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후 출력
 - 프린터는 공유기를 사용
 - 사용하지 않는 복사기는 예열로 전환
 - 팩스 사용일지 기재
- (5) 승용차 출퇴근 자제 및 대중교통 수단 적극 이용
 - 출·퇴근시 대중교통 적극 이용, 부득이 이용시는 2인 이상 함께 타기
 -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관내 출장시 대중교통 이용
 - 외국인, 해외친지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발송
- (7) 봉급의 10%이상 저축하기 운동
- (8) 낭비적 소비, 휴가행태 배격
- (9) 전화요금 자동납부하기
 - 전화요금 자동납부 이용시 전화요금 1% 추가 할인

- (10) 에너지 절약 철저 시행
 - 점심시간 및 일과시간 이후 불필요한 조명 및 컴퓨터 사용 억제
 - 자연광 이용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 방지
 - 자연광으로 적정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소등
 - 형광등의 올바른 사용법
 - 오래되어 흐릿한 형광등은 빨리 교체
 - 고조도 반사각은 반사율의 향상으로 30%이상의 절전 효과
 - 냉장고의 효율적 사용
 - 냉장고는 벽에서 10m 띄울 것
 - 냉장고 공간은 60%만 채울 것
 - 수도물 절수방법
 - 양치할 때 반드시 컵을 사용
 - 수도계량기 수시점검(누수 여부 확인)
 - 기타 화장실 변기 등의 누수 여부 확인
 - 동절기 실내 적정 난방온도는 18℃ 유지
 - 기름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
 -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해

- 주면 10%의 연료가 절약
- 에어컨 사용 절약과 냉방을 동시에
 - 에어컨을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60%의 에너지 절감
 - 냉방온도를 1℃ 높이면 10%의 전기가 절약
 - 하절기 적정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여름철 냉방은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사용(에어콘은 선풍기에 비해 30배의 전력 소모)
 - 에어컨 필터는 한 번씩 청소
 - 에어컨 가동중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으로 막아주면 냉방효과 제고(15%)
 - 선풍기는 가능한 한 미풍으로 사용
- 자동차 에너지 절약 방법
 - 부득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구입
 - 반드시 차계부를 기록할 것
 - 급출발, 급가속을 하지 말 것.
 - 겨울철 워밍업 시간은 1-3분이 적당
 - 평균속도를 유지할 것
 - 주행에 무리가 없는 한 상단기어를 사용할 것.
 - 불필요한 차량중량을 줄일 것
 - 에어컨은 가급적 40km/h이상의 속도에서 사용할 것

생활정보

생활정보